

조상을 통한 오염과 부패는 있어도 저주는 없다.

필자는 그동안 20여 년 동안의 목회현장에서 이런 죄의 처절한 속박 밑에서, 알콜중독과 니코틴 중독, 성 중독, 혹은 소비 중독 등에 시달리며 반복되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저항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좌절해 버린 수많은 어두운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분명 자기 의지의 한계와 도덕적 절망 속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부르짖던 기도와 때로는 일시적인 성령체험에도 불구하고, 곧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 자신의 내적인 부패성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라고...

이들에게 그 죄의 연원이, '당신'이 아니라 바로 '조상'에게 있으며 그 집안에 흐르는 무서운 '저주'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인격적 노력으로 결코 그 반복되는 죄의 악습을 극복할 수 없노라는 설명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된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내부의 약점을 환경 탓, 혹은 조상 탓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책임회피의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필자는 거듭난 성도에게도 여전히 옛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 있으며, 그 뿌리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이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가게에 흐르는 오염, 혹은 부패, 혹은 기질적 유전적 결합'이라고 부를지언정, 결코 '저주'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모든 '언약적 저주'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 하에서는 모두 사라졌으며, 신약 성도들에게는 다만 '사랑의 징계'만이 있기 때문이다.

축복, 그리고 사랑의 징계'가 있을 뿐, 옛 언약 하의 그 무시무시한 '언약 파기의 저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구약의 저주란 '은혜의 단절'을 가리키는 바(렘 16:13), 어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에게 '은혜 밖의 저주' - '율법의 저주'가 현존할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성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상으로부터의 오염과 부패'는 분명 있



‘조상으로부터의 오염과 부패는

있을 수 있어도, ‘저주’는 결코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올 수 있어도, 결코 '저주'는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목회자들은 이것을 교우들에게 확실히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격적 만남보다 신비적 경향을 더 선호한다

둘째, 가게 치유자들의 권면은 신자로 하여금 신앙생활 중 '사죄의 확신'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며, 십자가 은혜의 '인격적 만남'보다는 '신비적 만남'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갖게 한다.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죄의 고백'을 통한 '인격적인 사죄의 확신'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인격적인 의뢰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속죄체험'보다는, '조상으로부터의 저주와 악령의 영향력을 원천봉쇄시켜주는 이른바' 비